세계 최고 전기차 경주대회 '포뮬러E' 8월 13, 14일 서울 잠실서 결승전 열려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경주대회인 '포뮬러E 챔피언십'(사진)이 8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

주로 서킷에서 치러지는 포뮬러원(F1)과 달리 포뮬러E 챔피언십은 저소음·무공해라는 장점 덕분에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심에서 치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E-프리 2022'는 도심 한복판인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진행된다. 주변 도로와 주경기장 단지에 조성되며 서킷 길이는 2620m다.

2021~2022 시즌은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시티, 로마, 모나코, 베를린, 자카르타, 뉴욕, 런던을 거쳐 서울까지 총 9개의 도시에서 총 15번의 라운드로 진행되며, 대망의 결승전이 13, 14일 서울 대회에서 열린다. 원성열 기자

대한항공, 1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 7884억 원 기록…전년비 533% 증가

대한항공이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잠정실적에서 매출은 2조 8052억 원, 영업이익은 788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의 7044억 원이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33%나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5439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288억 원)와 비교해 흑자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여객노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3598억 원을 기록했다. 화물 부문은 2조148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차입금 감축을 통해 재무구조도 대폭 개선하고 있다. 2019년 말 814%이던 부채비율은 2022년 1분기 기준 255%로 559%p 감소했다. 2011년 IFRS 도입 이후 최저 부채비율이다. 1분기 말 현금성 자산 역시 4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필러 시술, 무턱대고 시행하면 부작용 숙련도 높은 의료진과 맞춤 상담 중요

필러는 보톡스와 함께 대표적인 쁘띠 시술이다. 주사로 특정 물질을 주입하면 마무리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노화로 처진 볼과 이마, 깊게 패인 팔자주름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코, 미간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간단한 시술이라고 무턱대고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라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필러 부작용 요인 중 하나로 비분해성 재료를 꼽을 수 있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아 안면 조직에 축적되기도 한다. 이는 염증, 붓기, 피부 괴사, 통증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물질로 남아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변해 커다란 스트레스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필러 시술은 적정량을 가지고 필요한 부위에만 적용해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술에 활용되는 재료 파악도 중요하다.

아울러 시술 전 적용 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볼, 이마, 미간, 턱 등 각 부위별 특징과 함께 환자 개개인의 노화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또 의료진과의 충분한 1대1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조건 저렴한 금액에 필러 시술을 받으려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비용보다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 및 노하우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주사를 놓는 포지션, 인터벌 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술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

망포 피부과 어바웃라인의원 **송이레**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LG전자, 차량용 반도체 개발 뛰어드나

설계·검증 등 개발 프로세스 '최고 등급' 인증

독일 전문기관서 ISO인증서 획득
ASIL D등급의 부품 개발 능력 인정
반도체 공급망 안정 위한 사업 검토
반도체 개발 체계·역량 지속 확보
글로벌 기능안전성 기준 선제 대응

인포테인먼트와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전장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개발 기술 확보에 나섰다. LG전자는 차량용 반도체의 설계와 구현, 검증 등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전문기관에서 인증받았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김진경 LG전자 SIC센터장 상무(왼쪽)가 프랭크 주트너 TUV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LG전자

●개발 프로세스 ISO 인증

LG전자는 최근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ISO 26262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전자 장치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규격이다.

LG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전자제어장치(ECU),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전력관리반도체(PMIC)같은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에 ISO 26262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 기능안전성 가운데 최고 수준인 ASIL(자동차안전무결성수준) D등급의 부품 개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LG전자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모든 등급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SIL은 사고의 심각도, 발생빈도, 제어가능성 등에 따라 최저 A등급에서 최고 D등급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D등급은 1억 시간 동안 연속 사용했을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을 1회 이하로 관리하는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LG전자는 앞서 TUV 라인란드로부터 ADAS(주행보조시스템)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자율주행차 부품과 차량 미디어 부품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인증받은 바 있다.

●인증 대상 지속 확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차량용 반도체 개발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증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 등의 추진을 저울질하기에 앞서 우선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의 기능안전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인증 대상을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기능안전 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경 LG전자 SIC센터장(상무)는 "빠르게 IT기기화 되고 있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기능안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프랭크 주트너 TUV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는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기능안전성까지 확보해 앞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폴스타 2' 두 달만에 대세 입증…4월 수입 전기차 판매 1위 달성

4월 460대 판매…전월비 84.7% 증가
업데이트된 폴스타2도 3분기 출고
편의사양 추가…가격 인상폭 최소화

스웨덴의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5도어 패스트백 '폴스타 2'가 4월 수입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폴스타 2는 지난 한 달 동안 460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월 대비 84.7% 증가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차량을 출고한 지 약 두 달 만에 정상에 올랐다.

4월에 판매된 폴스타 2에는 460대 모두 주행을 보조해주는 '파일럿' 및 각종 편의사양이 추가되는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됐다. 또한 90% 이상이 롱레인지 싱글모터(1회 충전 주행거리 417km) 모델이다.

폴스타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시작한 업데이트(상품성 개선)된 폴스타 2도 3분기 내에 차량 출고를 시작할 계획이다. 편의 사양의 변화를 보면 플러스 패키지에 '에어 퀄리티 시스템'이 추가됐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선쉐이드가 액세서리로 추가돼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

편의 사양을 추가하고도 가격 인상폭은 최소화했다. 업데이트된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모터의 차량 가격은 549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롱레인지 듀얼모터는 3% 인상된 599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폴스타코리아는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신세계 센트럴시티와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여의도 IFC 몰, 스타필드 고양 등 총 4곳에서 폴스타 2를 전시하는 '투 온 투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4월 수입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폴스타의 5도어 패스트백 '폴스타2'. 사진제공 | 폴스타

코오롱글로벌, tvN '우리들의 블루스'에 로봇청소기 협찬 눈길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감성 매력
스타터키트 무료 증정 등 혜택

코오롱글로벌이 tvN 토일 드라마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에 로봇청소기 브랜드 니봇 제품을 협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총 20부작으로 방영되는 '우리들의 블루스'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제주, 차고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각양각색 인생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드라마.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한지민, 엄정화, 이정은, 김우빈 등이 출연한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5일 "선아 역을 맡은 신민아의 거실에 '니봇 Q11 로봇청소기' 제품을 협찬했다"며 "니봇 Q11 로봇청소기는 고급스런 디자인과 감성으로 공간 인테리어의 수준을 올려주는 제품이다. 특히 극중 선아 캐릭터와 이미지가 잘 맞아 드라마 속 장면을 더욱 빛나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까지 계속되는 드라마 방영 기간 동안 스타터키트 무료 증정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니봇 Q11은 11번가, 신세계, 쿠팡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니봇은 로봇청소기 전문 글로벌브랜드로 미국, 대만, 일본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니봇 Q11 로봇청소기